



인술을 통한 ‘나눔과 봉사’의 실천

그 아름다운 가치를 실천하는 고려대 안산병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필리핀 심장병어린이지원단(단장 장기영)이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을 위해 케손시티, 아로마그 등의 빈민촌을 방문한날...

수 십명의 심장병어린이가 사랑의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고사리같은 자그마한 손으로 집에서 찢은 삶은 옥수수를 내미는

어린이의 성의에 의료진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동정이 아닌 의술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나눔과 봉사’를 통한 인술의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동북아 연구허브, 고려대 안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서해안 시대 거점병원에서 선진의학 구현하는 동북아 연구중심 병원으로



고려대 안산병원 의과학연구소 교수 및 연구원(오른쪽 끝, 이홍식 소장)

기초, 임상, 연관분야를 아우르는 의과학의 선도적 연구역량은 의료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를 이겨낼 원동력이자 미래를 위한 도약대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과업달성을 위해 고려대 안산병원에 자리잡은 ‘의과학연구소’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교수 및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이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지역사회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이제 동북아 의과학연구허브를 꿈꾸고 있다. 이번, 고려대 안산병원 뉴스레터 창간호에서는 고려대 안산병원의 연구 메카 의과학연구소를 집중조명 한다.(2면에 계속) 📖

축사



병원성장의 동력과
희망의 소식 전하는
매체 되기를...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홍승길**

열정과 도전의 개척정신으로 점철된 고려대 안산병원이 진료, 연구,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각종 정보를 전달할 『고려대 안산병원 뉴스레터』를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의료의 불모지였던 안산지역에서 인술의 뿌리를 내린지 20여년이 지난 동안 안산, 시흥 등의 대규모 공단과 신도시를 접하고 있는 병원의 특성에 맞추어 진료특성화와 지역유대강화, 대형 코호트연구 등의 다양한 병원성장 동력을 도출해 경기권역 및 서해안 지역 대표병원으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런 병

발간사

사랑과 나눔의 메신저 되기를...



고려대 안산병원장 박영철
교직원간 가족애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 성장한 고려대 안산병원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담게 될 『고려대 안산병원 뉴스레터』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경기 서부

권 중심병원이자 서해안시대 대표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홍보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병원단위의 종합 홍보매체가 존재하지 않아 안산병원의 우수한 진료 및 연구역량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병원정보 등을 고객 및 외부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뉴스레터 창간호 발행을 계기로 고려대 안산병원의 수준 높은 의료의 질과 최첨단 의료장비, 앞서가는 고객감동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안산병원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발간되기 위해서는 교직원 및 고객,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시 귀를 기울이고, 병원의 참신한 뉴스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고려대 안산병원 뉴스레터를 늘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01 **특집.** 동북아 연구허브, 고려대 안산병원 의과학연구소
발간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박영철
축사.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홍승길

02 **특집.** 불이 꺼지지 않는 의과학연구 메카, 고려대 안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축사. 안산시장 박주원

03 **전문센터소개.** 수면호흡장애센터

04 **BSTE HEALTH CARE.** 신생아중환아실
최신장비소개. CT(Brilliance 64 Channel)
디카세상. 사진소개

05 **부서탐방.** 의료사회사업팀
모범직원. 73병동 이현숙간호사
미니인터뷰. 피부과 최재은 전공의

06 **병원동정.** 대표행사 및 소식
식탁에서 만난 건강한 삶. 영양정보

07 **협력병원탐방.** 두손병원
Q.I 24시. Q.I연구 및 실천사례

08 **광고.** 필리핀심장병어린이지원사업

불이 꺼지지 않는 의과학연구 메카, 고려대 안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의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개최 장면

고려대 안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의과학연구소는 임상시험센터를 비롯한 고대 안산병원 7개 전문센터와 4개 연구소, 그리고 ‘임상시험윤리위원회’ 및 ‘동물실험실’ 등과 연계해 고대의대의 연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미래 황금부가가치산업이 될 의료, 제약 산업의 발전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과학 연구소는의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전임교수배치, 실험기자재 확충, 계열별실험실 정착, 연구 정보교류 확대, 정기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소 운용 복안을 가지고 연구활성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7일 Vanderbilt University 연구교수 김석형 박사를 초빙해 의과학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임상 및 기초 교수로부터

상주근무 연구교수까지 ‘전방위 연구 구도’ 완성

의과학 연구소는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을 전공한 역량있는 26명의 교수진 이외에도 2005년부터 신규 임용된 4명의 대학원 연구전임교수는 의과학연구소에 상주해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향후 기초와 임상의학의 연계연구는 물론 신진교수의 연구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의과학연구소에 상주하는 4인인의 연구교수 보유는 타 의료기관에서는 보기드문 광경으로 임상 및 기초연구 분야를 넘나들며 융성한 연구활동을 펼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사

안산시장 박주원



먼저 “고려대 안산병원 뉴스레터”의 창간을 70만 안산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고 즐거우며 행복하십니까? 안산시 제4기 민선시장으로서 저는 “시민을 편

의과학연구소 중원사령관 ‘이홍식 소장’

의과학연구소를 진두지휘하는 이홍식 소장은 ‘병원의 수준은 의과학 연구성과에 달려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임상의학과와 동반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연구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한 말이다. 이 소장은 “고대의대의 연구전통과 안산병원의 임상 및 기초역량을 토대로 뿌려진 연구의 새싹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과학연구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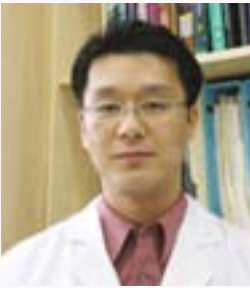
연혁	개요	각종실험실	보유장비
	본관 3층(328평)		세포배양시스템
	4층(218평)		동위원소실,
1996년 임상연구실 개소	546평		gamma counter, ter
1998년 병원신축, 핵의학 과 내로 실험실 이전	~ 실험실 6실, ~세포배양실 3실	조양생물학실험실	각종현미경, Digital Imaging
2001년 별관지하, 임상 의 학 연구 소 개소	~암실 1실 ~동위원소실 1실	발생물학실험실	Spectrophotometer, Luminometer
(150평)	~세미나실 1실	분자생물학실험실	Fluorespectrometer
2002년 의학동물 실험실 개소	~교수연구실 4실 ~Cold room 1실	면역학실험실	PCR machine
(140평)	~Clean room 1실	신경과학실험실	Blotting system,
2005년 의과학연구 소신축	~소동물 수술실 1실, 청고 2실 7터 4실	의생물공학실험실	현상기
(546평)	~의 학 동 물 실험 실	의학동물실험실	Animal monitoring system
	122평		Animal operating room
	총 668평		등 200여종

연구교수 소개



오준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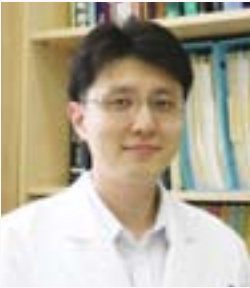
세포이동(Cell Migration)에 대한 분자기전 연구와 세포외기질 remodeling의 조절기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포이동은 세포의 생물학적 기본활동으로서, 그 분자기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데, 산생혈관형성에서의 내피세포 이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섬유종이라는 모델을 이용하여 ECM remodeling의 분자기작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김태우 교수

항암면역치료, 즉 암 특이 항원(tumor specific antigen) 또는 암 관련 항원(tumor associated antigen)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암 특이적인 독성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들에 의해 암이 치료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상기의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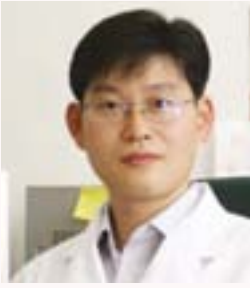
암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면역제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술이 실현화 된다면 항암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다.



황선욱 교수

황 교수는 특히 말초신경의 통증수용체 연구와 진통제 후보물질 발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TRP ion channel 군의 기능의 명확한 규명 및 작용약물 개발을 수행하여 말초통증기전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통증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연구로부터 비롯되는 TRP ion channel이나 관련 생체물질 등 새로운 치료표적의 발굴, 약물개발을 통한 질환치유의 기여는 삶의 질과 생산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박해철 교수

박해철 교수는 세계적으로 척추동물의 발생연구를 위한 모델동물로서 각광받고 있는 zebrafish를 이용하여 척추동물의 신경계 발생 및 분화과정을 분자적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손상된 신경계의 재생을 위한 성체 신경계 줄기세포의 분화유도 기술을 개발하고자 성체신경계 줄기세포들의 규명 및 분화조절기작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성체신경계 줄기세포에서 유래되는 뇌종양의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zebrafish를 이용한 뇌종양 동물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 고려대 안산병원 의과학연구소 031412-6703



전문센터 소개

수면호흡 장애센터

잠을 잘 자야 인생이 바뀐다! 우리나라 건강수면 지킴이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

인생의 1/3을 수면으로 보낼 만큼 건강한 “잠”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행복지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선사하는 수면의학이 경제인구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강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수면 지킴이 이자 고려대 안산병원의 선도 전문센터인 수면호흡장애센터를 소개한다.



수면건강을 체계적인 의학수준으로 발전시킨 국내 최고의 수면센터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

1999년 개소한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는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건강한 ‘잠’을 선사함으로써 수많은 질병을 미연에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까지 국내 환자들에게 생소하였던 수면건강을 체계적인 의학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려대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에서는 수면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 증상을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수면장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임상연구로 국내의 수면의학의 한 단계 진일보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신경과와 연계하여 협진체계를 구축한 수면호흡장애센터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닌 심각한 질병으로 밝혀진 후부터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각종 검사, 수면의학 상담, 접수 등이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철교수를 필두로, 이비인후과 이승훈 교수는 코골이 환자의 코와 구강 내 해부학적 이상에 대하여 확인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지속적 양압호흡기와 같은 내과적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김진관 연구원은 수면호흡검사, 수면호흡장애에 대한 유병율 및 그와 연관된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범주 임상병리사는 수면다원검사를 나현숙 간호사는 수면검사 등의 예약확인하고 더불어 BP체크 내원사유 확인 등을 챙기는 등 철저히 전문화 및 분업화된 시스템을 가동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향후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는 최신 장비 도입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아늑한 수면검사환경을 조성하여 본 센터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편안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Interview

잠 박사, 신철교수 호흡기내과

미국에서 호흡기내과, 노인내과, 수면의학의 전문의 자격 및 이학박사를 취득한 신철 소장(호흡기내과)은 1999년 귀국과 동시에 미국에서 습득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본원에 수면호흡장애센터를

개소하였다. 만민에게 ‘잠 박사님’으로 불리며 국내 최고의 수면 전문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신 교수를 만나서 현대인들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신철 소장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중간에 매우 졸리는 현상이 생기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증 등이 생기고 학생에게는 학습능력의 감소를, 성인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방해하는 심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필히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면의학의 전망에 대해서는 “인생의 1/3에 해당하는 비중을 잠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져 가는 현대생활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의 숙면을 취하느냐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면의학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의료시장의 수요도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산 시민의 밤을 지키는 “수호자”에서 전 국민의 밤을 지키는 “수호자”로의 비상을 꿈꾸는 수면호흡장애센터 소장 신철 교수의 비전은 고대 안산병원의 역량이 집중한 센터로서의 면모를 엿보기에 충분했다.

잠의 열쇠를 풀어라!

‘제 2차 고려대학교 안산수면워크샵,개최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소장 신철)가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제 2차 고려대학교 안산수면워크샵,을 개최했다. 최근 수면의학에 대한 연구결과 들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수면의학 및 수면장애 검사 판독 등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워크샵에는 수면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정신과, 호흡기내과 의사 및 수면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 신철 소장을 비롯하여 스탠포드대 Clete A. Kushida 교수, 일본수면의학회 부회장 S. Miyazaki 교수, 서울대 이비인후과 이철희 교수, 하와이대 Carol Yoshimura 연구원 등이 연자로 나서 강의와 실습을 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글 ● 원내기자 윤성식(총무팀) sunsik21@kumc.or.kr 사진 ● 원내기자 이숙현(간호부) pporim@nate.com 문의 ●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 031412-5690

Best
Health
Care
고려대 안산병원
신생아중환아실

개원시 부터 신생아인구 많았던 지역적 특성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신생아 중환아실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 기형이 있는 환아 치료의 선두주자



고려대 안산병원은 1985년 개원시부터 가임기 부부와 신생아 인구가 많았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신생아중환자실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기들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곳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다차원적 협력진료체계와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특수 가스치료기 등을 비롯한 첨단장비 보유를 통하여 약 20여 명의 중환아를 집중치료하고 있다.

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특히, 고위험 신생아 중 동맥관 개존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환아의 수술실 이동없이 부서내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의료사회사업팀에서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병원 후원금기 및 외부 후원금 조성을 통해 보호자들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학적인 진료 및 간호질 관리 역점 뒤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 높여

기본이 지켜지는 원칙적인 감염예방 활동,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과학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발한 간호질관리(CQI) 및 연구논문 활동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여 병원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병동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모유수유 전문가에 의한 산모의 모유수유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고, 모아애착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글·사진 ● 원내기자 이선희(간호부) sunny5415@nate.com

최신
장비 소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고의 CT

Brilliance 64 Channel CT

뇌/심장/폐 질환 등의 질병 진단에 획기적 전기마련



고려대 안산병원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고의 CT장비 중 하나인 'Brilliance 64 Channel CT'를 도입해 가동함으로써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Brilliance 64 Channel CT'는 0.33mm부터 10mm사이의 다양한 영상 두께로 초당 최대95 개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비로, 임상적으로는 기존에 불가능 하던 뇌 관류 CT, 심장 혈관 CT, 폐 볼륨 CT 등이 가능해져 시간적 제약은 받는 허혈성 급성 뇌 경색 환자의 관류(Perfusion)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발 빠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영상의 구현으로 검사와 동시에 우수환3차원 영상이 제공되는 이 장비는 심장 혈관 CT로 빠르고 쉽게 심장의 관상동맥 이상 유무를 관찰할 수 있어 건강진단 환자나 응급 환자, 심혈관계 환자 등에게 심장 혈관의 석회화와 혈관의 좁아진 정도, 그 외 심장근육의 이상 정도 등 심장 질환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김백현 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Brilliance 64 Channel CT'는 한번의 호흡으로 몸 전체의 혈관 영상을 단 10초 만에 얻을 수 있는데, 환자의 고통이 전혀 없이 한번의 CT 검사로 CT 대장 내시경(Virtual Colonography)이나 CT 기관지 내시경(Virtual Bronchoscopy)과 같은 영상을 얻을 수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을 수 있는 장비로, 임상적으로는 기존에 불가능 하던 뇌 관류 CT, 심장 혈관 CT, 폐 볼륨 CT 등이 가능해져 시간적 제약은 받는 허혈성 급성 뇌 경색 환자의 관류(Perfusion)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발 빠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영상의 구현으로 검사와 동시에 우수환3차원 영상이 제공되는 이 장비는 심장 혈관 CT로 빠르고 쉽게 심장의 관상동맥 이상 유무를 관찰할 수 있어 건강진단 환자나 응급 환자, 심혈관계 환자 등에게 심장 혈관의 석회화와 혈관의 좁아진 정도, 그 외 심장근육의 이상 정도 등 심장 질환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김백현 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Brilliance 64 Channel CT'는 한번의 호흡으로 몸 전체의 혈관 영상을 단 10초 만에 얻을 수 있는데, 환자의 고통이 전혀 없이 한번의 CT 검사로 CT 대장 내시경(Virtual Colonography)이나 CT 기관지 내시경(Virtual Bronchoscopy)과 같은 영상을 얻을 수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글·사진 ● 원내기자 박경섭(시설팀) kyungsub78@naver.com

디카세상



찰칵찰칵!!!

“신이 가장 먼저 만든 꽃 코스모스” (꽃말 : 소녀의 순정)



양평 동물머리에서

신(神)이 가장 먼저 습작으로 만든 꽃이 바로 코스모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냘프고 어쩔지 흡족하지 못해 신(神)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 종류도 다양해진 듯합니다. 순우리말로로는 “살사리꽃”이라 부릅니다. 살사리꽃...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거리며 군무를 즐기는... 꽃이 평범하다보니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일단 좋아하게 되면 매우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

글·사진 ● 원내기자 박준우(전기실) linkjun@hotmail.com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진을 사연과 함께 manpr@kumc.or.kr 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신 본개는 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부서탐방

의료사회사업팀

의료사회사업팀

의료사회사업팀, 사랑에 빠지다

최근 날로 증대되는 사회사업 임상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2005년 4월 본원에서는 기존 고객센터서비스팀에 구성되어 있던 사회사업 파트를 하나의 독립된 의료사회사업팀으로 분리시켰다. 그리고 업무를 사회사업, 임상 및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상담, 자원봉사자 관리 등으로 분화시킴으로서 전문적이고도 구체화된 실천으로 사랑의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팀은 어떤일을 하나요?

의료사회사업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환자들이 심리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병의 치료, 회복 그리고 예방에 지장을 받게 될 때, 의료진과 협의 진단 하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사업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자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자기들의 능력한도 내에서 문제의 해결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일

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자들의 교육·배치, 학생자원봉사자들의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호스피스 자치회 진료비 지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안산과 하나가 되는 고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은 ‘사할린동포지원사업’, ‘필리핀심장병어린이지원사업’, ‘2005 경기도(안산)자원봉사대회’와 ‘제7회 안산시자원봉사 대축제’ 등 국내·외 각종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대안산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원’,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병원’으로써 인식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향후, 의료사회사업팀은 더욱 환자의 사회사업 서비스 만족에 정진하여 환자의 진료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심리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위해 이 시간도 사당실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글·사진 ● 원내기자 이명훈(임상시험센터) yearman@naver.com
문의 ●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 031-412-5433

미니인터뷰



난치성 피부질환 기전 밝혀내는

차세대 뉴 프론티어 (New frontier)

최재은 전공의(피부와 레이저 2년차)

전공의들은 늘 피곤하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외래와 병동에서 환자들과 씨름(?)하며 보내고, 저녁엔 당직과 각종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내 자정을 넘긴다. 그 피곤함을 극복하고 장차 의료계에 필적(筆跡)을 남기고자 묵묵히 준비하는 의사가 있다. 최재은 전공의(피부와 레이저 2년차)를 만났다.

의사에게 실력은 기본, 당찬포부, 피부면역학의 열의를 풀겠다!

환자에게 명의를 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최 전공의는 “의사의 기본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명의를 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며 아토피 피부염, 건선, 백반증 등 만성 피부질환으로 수 년 이상 장기 내원하며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 그들이 심리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피부면역학의 열의를 풀겠다! 당찬 포부가 아닐 수 없다. 일반인들은 피부과하면 피부미용을 떠올리기 쉽겠지만 대학병원에서는 피부질환을 주로 다루는데, 아직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치료역시 어려운 병이 많다고 한다.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한 것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피부는 특이하게 밖으로 보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심리적 고통이나 생활의 불편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환자가 답답해하는 걸 보면 의사는 더 안타깝다”며 앞으로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전자처트나 PACS 등의 도입으로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전공의 과정은 여전히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재은 전공의는 환자가 의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의사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다. 최근 최 전공의는 일이 부족 늘어났다. 진료, 전공의 교육활동, 추계학회 준비와 병원 내 연구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공의로서 힘들 때도 많아요. 하지만 매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안산병원 분위기가 역동적인데다 교수님들과 외래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며 밝게 대답했다.

“가장 행복할 때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떨고 영화볼 때, 참, 요즘은 저한테 온 애매한 환자가 바르게 진단되고 치료됐을 때요.(웃음) 피부과 의사니까 앞으로 피부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직 아는 건 없지만 전공의로서 차근차근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피부면역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해외 유명 인명사전에 그녀의 이름이 등재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를 일이다. 인터뷰가 끝난 저녁 8시 20분 그녀는 다시 전공의 숙소로 발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 피부과학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



15개 병·의원과 협력병원 협약 조인식 가져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은 9월 29일(금) 오후 4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동안산병원, 온누리병원, 신천연합병원 등 15개 병·의원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갖고 지역주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상호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려대 안산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한 15개 의료기관은 조인식에서 진료, 교육, 연구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협약으로 안산지역을 기반으로 앞으로 환자 진료 및 임상 교육을 위한 인적/기술적 지원,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학/경영정보 교환 등 폭넓은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㉔

필리핀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 실시



안산병원은 필리핀 심장병어린이 지원사업단(단장 장기영, 소아과)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 케손시티, 라오마그 등의 빈민촌 등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심장병 무료검진을 펼쳐 현지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필리핀 심장병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고대 안산병원 소아과와 흉부외과가 주최하고, 성안교회화가 후원했으며, 올 10월부터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5명을 고대 안산병원으로 초청해 심방중격결손 및 심실중격결손 등의 심장병 수술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㉔

간호부 1004Day 봉사활동 실시



간호부(부장: 김정숙)는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대내외의 이미지 고취를 위하여 10월 10일 다채로운 1004Day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1004Day 행사에서는 '건강체크 및 건강상담', '일일보호자 서비스', 소아환아를 위한 '구연동화' 및 '풍선아트쇼' 등이 실시됐으며, 일반 내원객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반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교육', 간호활동 및 봉사활동을 기록한 '간호사전전' 등이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㉔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공연실시



안산병원은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본관 대강당에서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레크레이션'을 실시했다.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고 보호자를 위로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 보호자, 교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레미게임, 댄싱경합, 노래따라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자와 참가자들이 함께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㉔

9월 최우수 친절직원·부서, 굿마일리지 포상 실시



안산병원은 9월 20일 오후 4시 30분 세미나실에서 고객소리함 등을 통해 선정된 '9월 친절직원' 및 '2006년 2/4분기 굿마일리지' 포상을 실시했다. 병원내 고객접점부서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객만족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번 친절직원 시상식에서는 의료직 부문에 정형외과 왕준호 교수, 간호팀 부문에 83병동, 간호직 부문에 내과외래 김해란 간호사, 일반직 부문에 정영호 일반업무원 등이, 2006년 2/4분기 '굿 마일리지' 포상자로는 71병동 김선빈 간호사가 선정됐다. ㉔

호스피스 바자회 성료

안산병원 호스피스회(회장:최재현)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관로비에서 '제3회 안산병원 호스피스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를 통해 나온 수익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기 암 환자를 돕기 위해 개최한 이번 바자회에서는 떡볶이, 파전, 호박전, 어묵, 고구마, 당풍, 뽕튀기, 비타민 등 먹거리 외에 세제·세안제 생활 필수품, 의류 등 10여가지 품목을 판매했으며 소정의 수익금은 안산병원에 입원중인 호스피스 환자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㉔

‘마르퀴스 후즈후’ 인명사전 등재 안과 백세현 교수, 정신과 한창수

안과 백세현(白世鉉, 41)교수와 정신과 한창수(韓昌秀, 39)가 최근,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2007년 판에 등재됐다. 백세현 교수는 안검, 안와, 눈물길 질환과 관련된 안성형 분야에서, 한창수 교수는 국제학술지 등에 치매, 우울증 등 신경정신질환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위험요소 및 예방법 연구 등에 있어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발표한 것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㉔



식탁에서 건강 찾기

**전립선암 예방법,
알고 보니 우리 식탁에 있었네!**

콩, 마늘 등 전립선암 예방 효과 탁월

전립선암은 육류 지방 특히,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 들어 우리 나라도 환자가 급증해 남성의 암 발병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립선암의 예방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식탁! 이번 호에서는 전립선암의 예방을 위한 보약 같은 식품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식단 속에 암 예방의 비결이 있다!

대두 단백질 미국 듀폰사가 출자한 쉐레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관련 제품의 건강강조표시 승인 신청한 증거자료에, 대두 단백질을 섭취하면 전립선암의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미국 쉐레 암연구소 책임연구원 린 안 박사는 "매일 대두단백질을 섭취하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늘 최근, 세계적 영양학 학술지인 Nutrition & Cancer지는 마늘의 항암 성분인 알리신 등이 효과적으로 전립선암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게재하며, 동물실험 결과, 마늘 추출 물질이 전립선암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어를 비롯한 등 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 있는 DHA와 EPA 성분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1년 6월 세계적인 학술지인 Lancet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약 3,000명의 남성을 상대로 30년 간 조사한 결과, 많은 양의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에게 비해 생선을 거의 먹지 않았던 남성에서 전립선암이 2~3배 더 많이 발생했으며, 생선 중 EPA와 DHA가 많은 연어, 청어, 고등어의 섭취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㉔

글 ● 원내기자 윤영주(영양팀) richyoung11@yahoo.co.kr

세계최고 수부외과 전문병원 지향하는 두손병원

협력병원
팀방



**두손병원, 국내 중소병원 유일의
수부외과세부전문의 수련병원**

명실상부한 수부외과 전문병원으로 널리 인정받아

두손병원의 자취는 1994년 두손성형외과의 개원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2001년 새로운 도약을 맞으면서 장비와 인력, 첨단시설 등을 갖추게 되었고 전문화 · 특화된 재건성형을 바탕으로 수부외과 전문병원으로 발돋움하여 오늘의 두손병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두손병원은 국내 중소병원 유일의 수부외과세부전문의 수련전문병원이다. 두손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부외과 분야에 속하는 재건수술은 높은 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와 크게 다르다. 재건수술이란 팔, 다리의 절단, 선천성 기형 수술 등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원상대로 재건하는 수술을 일컫는다. 손가락 한 개를

있는 데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뼈, 힘줄, 혈관, 신경이라는 네 박자를 맞춰 머리카락 보다 가는 실로 1㎜ 경 의 혈관 등을 꿰매야 하기 때문에 고배울 천미경 아래서 수술을 한다. 이 때문에 재건성형 부문은 오래전부터 의료계의 3D분야로 여겨져 지원자마저 자취를 감춘 것은 물론 유수 대학병원에서도 이 분야의 수술을 꺼리고 있다.

손가락 공장장, 황종의 원장

이 병원의 황종의 원장은 재건성형 중에서도 미세수술인 손가락 접합수술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손가락 수술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접합해 준 손가락 개수가 월 평균 150여건으로 수천개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손가락 공장장'이란 별명까지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황 원장은 하루 24시간을 항상 대기하는 것은 물론 72시간 동안 단 40분만 잠을 자고 내리 수술을 한 적도 있다. 두손병원의 주 환자층은 생상현장의 근로자들과도 볼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유명한 병의원들은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이 두손병원이 안산까지 내려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공단지역의 환자들이 잘린 손가락을 들고 서울까지 가져가게 되면 관리소홀 등으로 수술성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단 밀집지역인 안산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서울, 지방, 제주도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손가락 절단 환자들이 안산에 위치한 두손병원을 찾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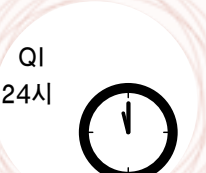


**손가락 붙여 피가 돌면 하얗던
손가락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
비로소 미소찾아**
기자와 만난 이 날도 황 원장은 수술
가운을 입은 채로 인터뷰를 해아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 오신 손님이라며
기자를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에 과연

이런 곳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할 만한 의사구나 싶었다. 손가락을 붙여 피가 돌게 했을 때 그래서 하얗게 손가락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 비로소 미소를 찾는다는 손가락 공장장은 안산지역 의료기관의 폭넓은 교류협력 등 협력병원간의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구축하여 상호발전하는 협력병원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당부하고 다시 수술실로 향했다. ㉔

글 ● 원내기자 산업의학센터
안광천(ahnkc21@hanmail.net),
강봉구 (b-goo@hanmail.net),
사진 ● 두손병원 제공





“친절 Upgrade! 고객만족 Upgrade!”

고객의 마음(마음)? 그거 잡히더라고요!



점점 더 친절하고, 빠르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의 내 · 외적 환경을 파악하고, 병원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대 안산병원은 ●I(Quality Improvement)활동에 꾸준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려대 안산병원 2005년 ●I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객응대표준화팀의 ●I활동사례를 살펴 봄으로서 '친절과 고객만족'을 향한 병원의 나아가길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친절 Upgrade! 고객만족 Upgrade!"

고객응대표준화팀(팀장 임영옥 수간호사)은 "친절 Upgrade! 고객만족 Upgrade!"로 주제를 설정해 각 병동 및 고객접점 부서 간호직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병원, 고객이 만족하는 병원"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QI연구 및 실천사항을 진행했다. 조사도구는 의료기관평가, 의료원 CSI 설문지를 기초로 총 19문항의 4점 척도 질문지를 개발해, 1차 조사기간을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2차는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정했으며, 일반병동에 입원한 재원일 2일이상 7일이하의 환자와 각 진료과 초진 및 재진을 포함한 외래환자 등 총 430명(입원 217명, 외래 213명)을 대상으로 했다.

목표설정, 고객의 마음(마음)을 잡아라!

고객응대표준화팀은 1차 사전조사 대비 입원은 6.3점에서 80.1점 이상으로, 외래는 72.6점에서 76.2점 이상으로 각각 전체평균 5%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각종 개선활동 수행에 착수했다. 우선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시간동안, 친절리더 양성교육과 친절리더 활동을 실시하였고, 2차에 걸쳐 고객 접점부서 모니터링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기본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7

월 3째 주부터 각 병동 및 외래 고객접점부서에서 친절인사말 캠페인을 전개해 전화응대, 처음응대, 고객응대 후 등의 친절인사말 등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0월 마지막 주부터는 부서별 친절초회를 실시하는 한편, 병동, 외래, 약제팀, 의료정보팀, 영양의학과, 안전요원 등에 이르기까지 간호 및 진료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에 몰두했다.

고객의 마음, 잡히더라!

여타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100점만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만족도가 76.37점에서 78.1점으로 2.27%p 향상했으며, 본인 재이용 여부가 0.6%, 타인에게 본인 추천여부가 9.6% 상승하는 등 입원환자가 준 병원 점수가 전체적으로 7.1%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외래는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2.48% 상승했으며, 본인 재이용 여부는 0.5% 소폭하락 했으나, 타인에게 본인 추천여부는 5.5% 상승해 외래에 준 고객의 점수는 4.04% 향상된 것으로 종합 집계됐다. 무한경쟁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고객의 요구 및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개념을 '고객지향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꾸준한 QI활동을 통한 '고객 친절서비스' 실천행보는 더욱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㉔